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20호

발행일 : 2017. 12.1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

<이달의 간증>

-박두식 성도-

2017년도 마지막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을 제게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3년이라는 어찌 보면 짧고 어찌 보면 그다지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무엇을 하던지,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결혼 한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결혼 전 저는 결혼에 대해 크게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 했고, 성전 밝기를 도전하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저처럼 성전 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꽤 많지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기도 분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성전에 올라 기도 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결혼에 대한 간구를 하였습니다. 항상 일이 끝나고 늦은 시간인데라도 혼자 성전에 올라 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혹여 이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어갈까 염려되어 많이 근심하셨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서울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프로그램 진행 중 하나님께서는 서울 목사님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 목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난 아내를 저는 너무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정말 지혜롭고요~~ 당진 생활이 이제 1년쯤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당진 사람 다 되어 저와 더불어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 알찬 성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에 이 자매와 결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아내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보다 살아갈수록 더 애뜻하고 행복한 부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지금의 생활은 더 없이 감사의 연속입니다. 공중 나는 새들도 돌보시고 들에 핀 들꽃과 풀조차도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와 아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역예배 때에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말씀 중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가장으로써 먼저 아내를 잘 섬겨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구역장님의 말씀을 통해 아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섬기지 못하였던 지난날들이 아내에게 정말 많이 미안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 이제는 몸으로 마음으로 항상 아내를 섬기며 살아보렵니다.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심방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대로 완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부부로 살겠습니다.

감사 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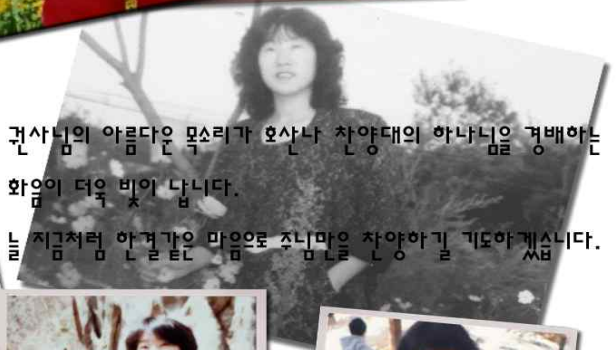
이금자 권사

간구하는 모든 것 중 단 하나도 거절치 않으시고 무조건적 사랑을 통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편 박영만 집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안에 설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음 : 송정숙 집사님

성도알아가기...



귀사님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호산나 찬양대의 하나임을 경배하는
화음이 더욱 빛이 납니다.

늘 지극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알아가기

-김순미 권사-

1. 자신을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포이에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만드신바’라는 말로서 작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의 걸작품이자 최고의 자존감! 당진순복음교회 김순미권사입니다.

2. 안수집사님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셨나요?

문화원장님의 소개로 만났고요, 그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듣고 결심하였습니다.

3. 멋진 두 아들을 두셨어요, 아이들을 키우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성장 단계 마다 겪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기억되네요.

4. 정민군과 정석군은 지금 어디서 잘 지내고 있는지요.

큰아들 정민이는 서울에서 취업준비중이고,

작은 아들 정석이는 토론토에서 공부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5. 인생의 중반을 지난 지금 권사님께서서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믿음의 큰 부자요 증거 되는 삶을 이루고 싶습니다.

6. 안수집사님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궁금해요. 남편자랑 부탁드립니다.

아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 포용력이 풍부한 아빠요 자상한 남편, 때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안수집사님이십니다.

7. 권사님의 신혼생활을 어떠셨을지 매우 궁금해요. 말씀해주세요.

추억을 먹고 산다고들 하지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알콩달콩 잘 보냈습니다.

8. 권사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주 조용히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십니다. 권사님께 교회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9. 두 아들이 장성하였어요. 바라는 머느리상이 궁금해요.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요.
10. 올해가 벌써 십일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어요.
 올 한해 권사님의 가정의 지경은 어떻게 넓어지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족의 사랑온도가 뜨겁습니다.
11. 상투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혜스럽게 답해주세요.
 로또가 일등으로 당첨된다면?
 은혜스럽게 현금 드려야죠.^^ 단 한번도 사보지 않았기에 당첨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어요.
12. 권사님께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어릴 적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3.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지요.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로 없는 듯해요.
14. 가을 심방을 드리셨는데요. 심방을 드리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씀으로 상태개념보다
 관계개념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15. 권사님은 무슨 요리 잘하세요? 권사님의 어떤 음식을 안수집사님께서
 제일 맛있게 드시는지요.
 거의 일년에 반 정도는 된장찌개를 해요.ㅎㅎ 집에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16. 권사님은 휴일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세요?
 부모님을 뵈러가요.
17. 성가대 사역을 하시면서 권사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
 는지 궁금해요.
 마음속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요.
18. 부부란 무엇일까요?
 나의 거울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순복음교회

다니에 유초등부 전담아입니다.

저는 예수님 마굿간에서 태어나신걸
배웠어요. 그리고 죄많은 저희들은 구원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매달려 죽으신 것도
배웠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죄를 지지 않게 노력할게요.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교회 잘 지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단아 올림



웃으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서 하나 둘씩 1층 수돗가로 모입니다. 카페에는 한나 여선교회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마늘이랑 파를 다듬고 계시네요. 밖에 계신 성도님들은 산처럼 쌓인 배추와 무를 씻고 자르고 소금에 절이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번 겨울을 준비하는 교회 김장 하는 날입니다. 재로들을 아낌없이 헌물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시간과 노동으로 봉사하는 것을 아낌없는 마음으로 참여 해 주시는 성도들이 참 많네요. 이곳에 어느 한 성도의 마음이라도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모두가 나의 일처럼 열심히 임하시는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모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승리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2018년 맞이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구역 최고!!

희락구역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희락구역입니다.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지요.~

김종숙 권사님은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셨지요. 연약한 지체이지만 항상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존경스러워요.



유영자 권사님은 예전과 달리 걷는 것도 힘들어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도 주일이라도 지키시려는 사모함이 간절하시답니다.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저희들에게 당부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상كم 발랄한 **송미숙 권찰님**은 시시콜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들을 척척 감당 해 내는 센스 있는 권찰님이세요. 고만고만한 어린아이 셋을 키우며 어디서 그런 야무진 힘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 재롱둥이 주희를 키우고 있는 **조은희 권찰님**은 온유함과 순종에 모습이 어여쁜 분이지요. 권찰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NO 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승리 해 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 정말 감사하지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도로 우리 구역에 대해주신 **이성옥 성도님**이 계신데요.~ 주일학교에 영광이 엄마라고 하면 아실까요? 성품이 온화하시고요~ 직장 다니시느라 어려우실텐데도 카톡을 하면 감사하다는 고백을 늘 해 주시는 모습이 제게 또 하나의 감사가 됩니다.

우리 희락구역 식구들은 색깔이 너무나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 2017년 마무리 하면서 꼭 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고 구역장님께 물으니

"우리 구역 모든 식구가 다 함께 모여 구역에배 드리는 거예요"

하고 대답하시네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으니 그 예쁜 소망

이루어지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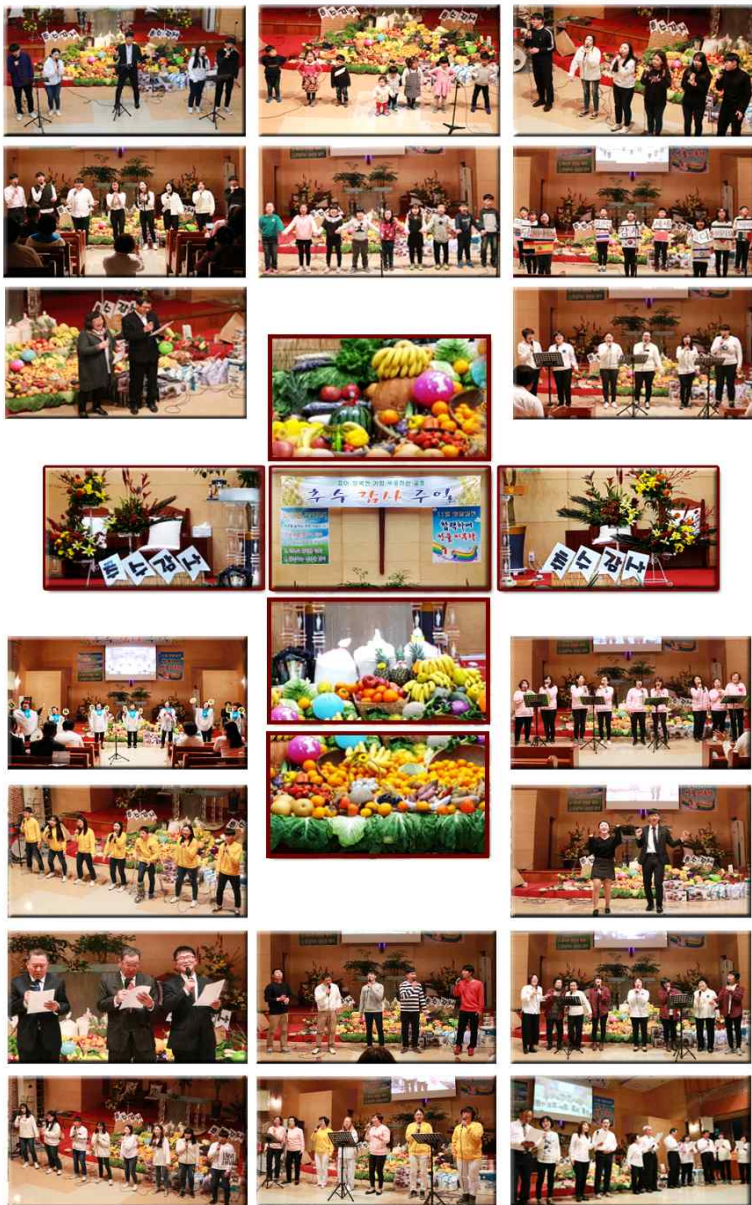
을 동 단 헌 신 예 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3-6절



주수 감사주일 찬양대회





2017.11. 19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릴 수 있음에 행복해 하던 날...

성경 숨은그림찾기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1:13)
[숨은그림: 거북이, 갈매기, 물병, 악어 머리, 팥이]



* 에수님의 사랑에 빛진 자, 복음의 빛진 자로서
생명을 구원하여 투신 그 원천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투님께 복 타령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크리스마스! 그 본질을 회복합시다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이다.

크리스마스! 이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탄생하신 날이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 놓으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날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며(롬 5:8),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회복이며(엡 2:14) 구약에 예언된 하나
님의 언약 성취인 것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기보다는 죄와 사망에 처
했던 우리 죄인들이 죽음(지옥)에서 생명(천국)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촌이 한바탕 기쁨과 환희의 축제
를 벌이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맞이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흥미위주의
일반적인 명절이 되어 버렸다. 이날은 사회 시스템이 휴가(holiday)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일 년 동안 수고한 가족들이 휴가를 갖는 모처럼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 가족들과 친지들이 어울려 시원한 곳으
로 나갈 계획을 세운다. 크리스마스가 휴가로 바뀌어지고 있다.

벌써 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들먹이며 세일을 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백화
점에 몰리고 있다.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치장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반겨주고 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그 본질을 떠나 상훈과 휴가철로 바뀌어지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차지한 불신의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

성탄의 명절화, 이것은 신앙을 빼고 상업성과 문화성으로 대체하려는 사탄의
작전인 것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어떻게 성탄을 지낸다한들 탓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탄절 의미가 타락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CHRISTMAS’는 ‘CHRIST’라는 말과 ‘MAS’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그리스도’란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서 “하나님께서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마스’는 예배와 경배를 뜻하는 말이다. 분명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이시며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탄생하시던 그날 천군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이다. 또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말구유에 강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고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다. 2017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날 첫번째 크리스마스에 천군천사들의 찬양과 그리고 목자들과 박사들의 경배를 되찾아서 강생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하신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을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드니중앙장로교회 원로목사 홍관표



시사용어 Briefing

트랙시트(Trexit)

트랙시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또는 사임을 뜻하는 신조어. 대통령
경의 성과 퇴장을 뜻하는 exit를 조합한 것이다.

레그테크(Regtech)

레그테크는 규제를 뜻하는 regulation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 통제와 법규 준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보기
술을 의미하며, 금융감독권의 올해 업무 계획 중 하나이다.

뉴칼라(New collar)

뉴칼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새로운 노동 계급을 뜻한다.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시대의 뉴칼라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
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터널링(Tunneling)

터널링이란 회사의 지하에 ‘터널’을 뚫어 회사 재산을 빼돌린다는 뜻이다. 즉 내
부 거래를 통해 기업의 자원과 이익을 오너 등 지배 집단이 전용, 도용, 이전하
는 것을 의미한다.

크런치 모드(Crunch mode)

크런치 모드는 회사가 정한 마감이나 제품 출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
을 일정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강도 노동으로 악
명 높은 게임 업계의 은어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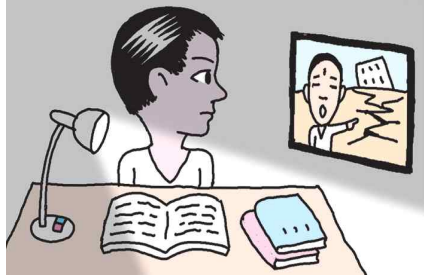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과 설문조사를 종합해 점수
를 합산하며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등급으로 매긴다.

<이달에 issue>

수능! 지진으로 밀리다.

우리나라는 수능시험이 그 어떠한 시험보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직업 또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1년을, 아니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수능을 염두하며 공부를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기위해 올 한 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결전의 날인 수능일이 다가왔다. 하지만 수능 전날 포항지역에 5.4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여진이 있을 것을 판단하여 건물의 안전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수능일을 일주일 연기한 2017년 11월23일로 변경했다.

수능시험이 밀린 경우는 이번까지 합하면 총 3번이 있다고 한다. 나라에서 열리는 큰 국제 행사들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 두 번이 밀렸지만 이번처럼 시험전날 밀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국제 행사등과 겹치는 경우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변경한 경우라 시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바로 전 날에 변경되어 학생들이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훈훈한 미담은 계속 되었다. 포항지역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위해 일부에서는 숙소를 제공하고 수능 당일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 해 주는 모습들과 학생들이 지각하지 않게 경찰과 시민들의 도움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시험 날짜가 밀렸다고 해서 분을 내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 어느 인생의 끝맺음 ❀

노인학교에 나가서 잡담을 하거나 장기를 두는 것이 고작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기 둘 상대자가 없어 그냥 멍하니 있는데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느니 그림이나 그리시지요?"

"내가 그림을? 나는 붓 잡을 줄도 모르는데"

"그야 배우면 되지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일흔이 넘었는걸."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의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 문제 같은데요"

젊은이의 그런 편잔은 곧 그 할아버지로 하여금 미술실을 찾게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그 연세가 가지는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 그는 성숙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은 떨렸지만 그는 매일 거르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새로운 일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평론가인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했던 '해리 리버맨'입니다.

그는 이후 많은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그림을 남겼으며 백한 살에 스물두 번째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50'이나 60'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남보다 늦게 시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든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등의 생각은 떨쳐 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 남들이 포기해 버린 것을 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

파도여 잠잠하라

대영제국 시절 영토를 크게 넓혀 나가던 왕이 있었다.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어느 날 신하들이 호화스러운 왕관을 씌워주며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왕은 이런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서 "파도여 잠잠하라." 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파도는 계속 일렁거렸다. 왕은 말했다. "보아라. 내 명령을 듣느냐?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거역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관을 쓸 수가 없다." 가누트 왕의 이야기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영국의 '머세르 프라임'이라는 고등학교 여교사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는데, 가정교육에서 자녀들에게 강조한 말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변하지 말라는 것과, 세상은 변해도 부모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니 지극히 도덕적 윤리심을 버리지 말 것이며, 세상은 변해도 인간은 그저 인간이니 하나님을 능가하겠다는 헛된 망상을 벗어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한 시간이 멀다하고 변하는 세상에서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생각만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에서(Esau)

뜻 : 털이 많다

이삭의 처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중의 큰 아들이자 그 별명은 에돔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사냥을 좋아하여 그 사냥한 고기로 부친 이삭을 기쁘게 하였다. 사냥에서 배고파 돌아올 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팔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창25:24-34). 부친 이삭이 축복하여 주려는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 하였으나 야곱이 알고 도망하여 죽이지 못하였다(창27:41-44) 20년 만에 만나 화목하고 세일산 부근에 이주하여 그 자손이 크게 번창하니 곧 에돔 족속이다(창35:5).



그 림 : 12세기말에 시테리아 섬에 건립된 몬레아레 대성당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서의 사건들을 묘사한 화면 중의 일부이다. 이 부분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며

여러 가지 계획들과 여러 가지 야무진 포부로 올해를 시작한지 벌써 11개월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직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그저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 모두에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순종과 믿음의 열매로 많은 축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만족과 감사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더 진하게 남은 분들도 계실 테지요. 우리네 인생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쑤처럼 어찌 보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 것인데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며 또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기쁨을 드려야 할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처럼 근심을 안겨드리고 마는 또 다른 모습과 마주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해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2018년은 지난날들보다 더 탄탄하고 정리 정돈 된 모습으로 깔끔한 삶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성도들의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까지 살뜰하게 챙기시며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양육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문서위원이 찾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우실 텐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간증과 시, 때로는 편지와 성도 알아가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이 작은 라이프지가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내년엔 더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뵈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서위원회 일동



◎ 이달의 교회소식

1. 집사2회 헌신예배 / 12월 3일
2. 특별새벽기도회 / 12월 4일~8일
3. 제직세미나 / 12월 14일
4. 평신도 헌신예배 / 12월 17일
5. 주일학교 졸업예배 / 12월 24일
6. 장학금수여식 / 12월 24일
7. 성탄축하제 / 12월 24일
8.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
9. 신년축복안수식 /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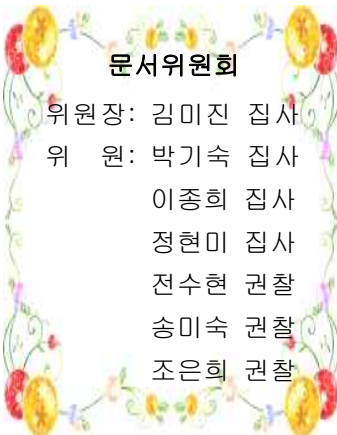
◎ 공지사항

1. 12월 생활실천표어 /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2. 축구부스페인전지훈련 설명회 / 12월 16일 오후 2시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